

# 명리 고전 하이라이트 강독 I

8강 신살 I

李虛中命書  
子平粹言



## 금여(金輦) < 三命通會 > 論金輦

輦者, 車也, 金者, 貴之義也, 譬之君子居官得祿, 須坐車以庫之.

故金輦常居祿前二辰, 如甲子人祿在寅, 辰爲金輦是也. 此煞乃祿命之旄旗, 三才之節鉞, 主人性柔貌願, 舉止溫剋, 婦人逢之, 不富即貴; 男子得之, 多妻妾, 陰福相扶持, 生日生時遇之爲佳, 骨肉平生安泰, 得賢妻妾, 子孫茂盛.

如皇族多帶此煞; 常格得之, 身在無氣中生, 主作贅.

여(輦)라는 것은 수레(車)이고 금(金)이라는 것은 귀(貴)하다는 뜻이니, 비유컨대 군자(君子)가 벼슬을 하면 녹봉(祿俸)을 얻는데 모름지기 수레에 앉아 보물창고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여(金輦)는 항상 녹전(祿前) 두 번째 별을 차지하며 가령 갑자인(甲子人)의 록은 인(寅)에 있는데 진(辰)을 금여로 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살(殺)은 녹명(祿命)으로 장식한 깃발이며 천지인(天地人; 三才)을 관장(管掌)하는 절부월(節斧鉞; 중국에서 황제가 지방으로 부임하는 독무(督撫)나 군사령관들에게 내려주는 절(節)과 부월(斧鉞)인데 절은 수기(手旗)이고, 부월은 도끼인데 명령을 어긴 자에 대한 생살권(生殺權)을 상징했다.) 이고, 주인의 성품이 부드러운 용모(容貌)를 원함인데, 행동거지가 온화하고 공손하니 부인(婦人)이 이를 만나면 부(富)하지 않은 즉 귀(貴)하게 된다.

남자가 이를 얻으면 처첩(妻妾)이 많아 음복(陰福; 드러나지 않게 몰래 들어오는 복)으로 서로 보살피니 생일과 생사에서 만나면 아름다운 것이고, 가족이 평생 편안하여 태평하며, 현명한 처첩(妻妾)을 얻고 자손이 무성하게 된다. 가령 황족(皇族)이 이 살을 많이 두르고 있으며, 평범한 사람이 이 격을 얻으면 몸은 있으나 기(氣)가 없는 가운데 생함이 있어 주로 혹 같은 군더더기를 지으니 쓸모가 없다.

## 8강 신살 I

《紫虛局》云：祿前二辰號金輦，遇此之人福最殊。偏主聰明多富貴，一生清泰亦無虞。

《八字金書》云：驛馬前辰居二位，此名金輦在其中，生於此處併行運，

到老爲官轉自通。是又以馬前二辰爲金輦。

若人命官貴夾擁，金輦引從，主大貴，若金輦見福貴，併將星者妙。

《자허국》에 이르기를, 녹전(祿前)의 두 번째 별을 이름하여 금여(金輦)라 하니 이것을 만난 사람은 복이 가장 뛰어나다. 금여로 치우침이 있으면 총명하고 부귀함이 많고, 일생 맑고 평안하여 모두 근심함이 없다.

《팔자금서》에 이르기를, 역마(驛馬) 앞의 별이 두번째 자리에 있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명(命)의 한가운데에 금여(金輦)가 있다고 하며, 이곳에 나서 행운이 나란히 머무르면 나이 들어 관직을 얻어 저절로 통한다. 이에 역마전(驛馬前) 두 번째 별을 금여라고 하는 것이다.

만약 사람의 명(命)이 관(官)과 귀(貴)를 협(夾)하여 호위하면, 금여가 끌어당겨 쫓아가니 주로 대귀(大貴)하고, 만약 금여가 복(福)과 귀(貴)를 보고 장성(將星殺)을 나란히 하면 묘(妙)한 것이 있다.

# 역마

## 〈三命通會〉 論驛馬

驛馬者, 乃五行有爲, 待用之氣, 強名也. 陰陽倚伏, 氣令循環, 猶之置郵傳命, 迎來送往, 氣藏如驛, 氣動如馬.

寅午戌火屬也, 水藏其中矣, 遇申位生水, 以發越之, 然后陽中陰動而化.

申子辰水屬也, 火藏其中矣, 遇寅位生火, 以圓融之, 然后陽中陰動而生.

亥卯未木屬也, 火藏其中矣, 遇巳位生金, 以橐龠之, 然后動者靜, 而斂者散.

巳酉丑金屬也, 木藏其中矣, 遇亥位生木, 以敷榮之, 然后斂者散, 而屈者伸.

또 말하기를, 역마는 오행에 있는 대용(待用)의 기운을 강조한 이름이다.

陰陽의 화복(禍福)은 서로 인연이 되어 일어나고 가라앉음을 반복하며, 氣로 하여금 순환되게 하니, 오히려 역참의 말을 전령삼아, 찾아오는 사람을 맞이하고 떠나는 사람을 배웅한다. 가령 역마의 기를 감추면 역참(驛站)이 되고, 역마의 기가 움직이면 말(馬)이 되는 것이다.

인오술은 火에 속하니 水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申의 자리를 만나야만 水를 생하니

발월(發越; 깨끗하고 흰칠함)한 연후에 양중의 음이 움직여 변화한 것이다.

신자진은 水에 속하는데 火는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寅의 자리를 만나야만 火를 생하니

원융(圓融; 한 곳에 통하여 아무 구별이 없음)한 연후에 음중의 양이 움직여 생하는 것이다.

해묘미는 木에 속하니 火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巳의 자리를 만나야만 金을 생하니

탁약(橐龠; 풀무와 피리인데 논자가 생각할 때는 바람을 일으키는 것을 말함)한 연후에 움직이는 것이 고요해지며, 저장한 것은 흩어지는 것이다.

사유축은 金에 속하는데 木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어 亥의 자리를 만나야만 木을 생하니

부영(敷榮;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 꽃이 활짝 핀 모양)한 연후에 저장된 것은 흩어지고 구부러진 것은 펴지는 것이다.

## 8강 신살 I

由是水火木金錯綜往來, 因時動靜, 內外相感, 互爲利用, 進則與時偕行, 退則與時偕極.

然則古之強名驛馬者, 皆此例也. 是特舉其一隅而已.

敬以三隅反, 則理歸一揆, 不必執寅午戌申, 申子辰寅, 然後爲馬.

凡水中火騰, 火中水降, 陰陽交泰, 剛柔變通, 皆爲馬類.

이로 말미암아 水·火·木·金이 착종(錯綜; 이리저리 뒤얽힘)되거나 왕래하여, 때에 따라 동정(動靜;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고, 내외에 따라 상감(相感; 서로 느끼고 감응함)하며, 서로 이용하여 나아가는 즉, 때와 더불어 함께 공존(共存)하고, 물러나는 즉, 때와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한다. 그러한즉 옛날부터 역마라는 이름을 강조한 것은 모두 이 경우인 것이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 그 한 모퉁이에 이미 세력이 왕성하기 때문이다. 세 모퉁이를 도리어 존중하는 것은 곧 이치로 돌아가 하나의 규범이 되므로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은 인오술의 신과 신자진의 인이 마가 되는 것이다.

무릇 수중에서 화가 도약하여 오르면, 화중의 수는 내려가서 음양(陰陽)이 서로 사귀어 평안하며, 강하고 부드러움이 막힘없이 통하여 모두 마류(馬類)가 되는 것이다.

## 8강 신살 I

寅午戌生人, 馬在申而五陽幹乘之. 見甲申, 截路空亡馬; 丙申, 大敗馬.

戊申, 福星伏馬. 庚申, 逢天關馬(有好官; 壬申, 大敗馬.

(又名劣馬, 主平生奔走, 財帛歇滅, 如壬申甲申丙申戊申, 四馬多疾, 再沈再起, 招是招非)

以上巳酉丑申年月日時發應.

인오술생인은 역마가 신에 있으니 다섯 양간이 승하는 것이다.

갑신을 보면 절로공망마요, 병신은 대패마다. 무신은 복성복마다.

경신은 봉천관마(官을 좋아함이 있다.)이고 임신은 대패마다.

(다른 이름으로는 열마라 하는데 평생토록 분주하고 재백이 고갈되며 임신, 갑신, 병신, 무신의 사마는 질병이 많고 두 번은 크게 망했다가 다시 재기하고 시비를 초래한다.)

이상은 사유축신의 년월일시에 발응(發應; 발하여 일어난다.)한다.

## 8강 신살 I

申子辰人, 馬在寅而五陽幹乘之.

見甲寅, 正祿文星馬. 丙寅, 福星馬.

戊寅, 伏馬. 庚寅, 破祿馬. 壬寅, 截路馬. 以上亥卯未寅年月日時發應.

신자진생인은 역마가 인에 있는데 다섯 양간이 승하는 것이다.

갑인을 보면 정록문성마이다. 병인은 복성마다. 무인은 복마다.

경인은 파록마다. 임인은 절로마다. 이상은 해묘미인의 년월일시에 발응한다.

巳酉丑人, 馬在亥而五陰幹乘之.

見乙亥, 天德馬 (又名劣馬), 以馬中支生幹, 主汨沒無成, 徒自聰明 (又名絕馬).

丁亥, 天乙馬 (是臨官馬). 己亥, 旺祿馬 (是長生馬). 辛亥, 正祿馬 (又名病馬).

癸亥, 大敗馬 (又名臨官馬). 以上申子辰亥年月日時發應.

사유축생인은 역마가 해에 있는데 다섯 음간이 승하는 것이다.

을해를 보면 천덕마(다른 이름은 열마다.)이고, 역마가 있는 지지가 천간을 생하면 무언가에 골몰하기만 하고 이루는 것은 없으며 한낱 스스로 총명하기만 하다.(다른 이름은 절마다.) 정해는 천을마다.(이것은 임관마라고도 한다.) 기해는 왕록마다.(이것은 장생마라고도 한다.)

신해는 정록마다.(또한 병마라고도 한다.) 계해는 대패마다.(또한 임관마라고도 한다.)

이상은 신자진해의 년월일시에 발응한다.



亥卯未人, 馬在巳而五陰幹乘之. 見乙巳, 正祿馬.

丁巳, 旺氣馬. 己巳, 九天祿庫馬. 辛巳, 截路馬 (一云值貴人半吉).

癸巳, 天乙伏馬 (一云值貴人吉). 以上寅午戌巳年月日時發應.

해묘미생인은 역마가 사에 있는데 다섯 음간이 승하는 것이다.

을사를 보면 정록마다. 정사는 왕기마다. 기사는 구천록고마다.

신사는 절로마다.(一說에 이르기를 貴人을 만나면 절반은 길하다고 한다.)

계사는 천을복마다.(一說에 이르기를 貴人을 만나면 길하다고 한다.)

이상은 인오술사의 년월일시에 발응한다.

## 8강 신살 I

凡柱中帶馬，若不值空亡，破敗，交退，伏神，須榮貴互祿，共天乙貴神，同其馬位。

更得諸殺相並，官秉大權，貴居廊廟，時爲上貴，日爲中貴，月爲常庶。

庫馬，主少年之喜；旺馬，資壯歲之榮；生馬，老方得遂，而官卑任遠矣。如木生亥旺，卯庫未，餘倣此。

《珞珞子》雲：“生馬未必有馬，背祿未必無祿。看其旺庫，不問背生。妙在消息盈虛也。”

대체적으로 사주 중에 역마를 띠고 이에 공망, 파패, 교퇴, 복신을 만나지 않으면 틀림없이 영귀(榮貴)함과 복록을 번갈아 누리며 한 가지로 천을귀신(天乙貴神; 天乙貴人을 말함)과 같이 역마 자리에 함께 하여도 그렇다.

다시 제살(諸殺; 여러 신살)이 서로 어울리면 벼슬은 대권을 장악하고 존귀함은 낭묘(廊廟; 조정의 정무를 보던 궁전을 이름인데 최고의 행정기관을 뜻한다.)에 이를 것이며, 시에 있으면 상귀가 되고, 일에 있으면 중귀가 되며, 월에 있으면 평범하다.

고마란 소년시기의 기쁨을 주관한다. 왕마는 장년시기 영화로움의 바탕이 되고, 생마는 늙어서야 드디어 얻는 것인데 벼슬은 낮고 임지는 멀다. 가령 목의 장생지는 해이고 제왕지는 묘이며 묘고지는 미이다. 나머지도 이와 같다.

『낙록자』에 이르기를 “생마라 해서 반드시 역마가 있지는 않고, 배록이라 해서 반드시 록이 없지는 않다. 그 왕고만 보고 배생은 묻지 않음이니, 묘한 것은 소식영허(消息盈虛; 천지의 시운이 변하고 바뀜)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又曰：驛馬者，三命中發用，喜慶之神。若人遇之，君子常居榮位，小人主豐贍。

大小運行年至此，主得官及遷改之喜。

小運及行年合驛馬，並主遷官得祿。

또 말하기를, “역마는 삼명가운데 발용(發用)하는 희경의 신이다. 만약 사람이 이를 만나면 군자는 항상 영화로운 자리에 있고 소인은 풍요롭고 넉넉하게 잘 살수 있다.”라고 하였다.

대소운과 행년이 이에 이르면 벼슬을 얻거나 자리를 옮기는 기쁨을 볼 수 있다.

소운과 더불어 행년이 역마와 합하면 아울러 벼슬을 옮기게 되며 복록(福祿)을 얻게 된다.

## 8강 신살 I

有干支合馬，如申子辰馬在寅，甲寅見己亥合，丙寅見辛亥合，主官職崇重。

有馬頭帶劍，謂驛馬上見庚辛，或納音見金，主名振邊疆。

有馬驟天庭，謂木人得亥而見辛亥，又馬上干逢得祿，如六壬人生，居寅午戌之位，於甲上遁得戊干，戊之祿在巳，巳系天庭，復見巳，得酉合之爲是，主官居極品。

‘간지합마(干支合馬)’가 있다. 가령 신자진(申子辰)이 역마가 인(寅)에 있는데 갑인(甲寅)이 기해(己亥)를 만나 합하고, 병인(丙寅)이 신해(辛亥)를 만나 합하면 주로 관직이 고관(高官)의 중책(重責)을 맡는다.

‘마두대검(馬頭帶劍)’이라는 것이 있는데, 역마 위에 경신(庚辛)을 보거나 혹 납음(納音)으로 금(金)을 보는 것을 가리키며, 주로 변강(邊疆; 변경지역, 국경지역)에서 이름을 떨치게 된다.

‘마취천정(馬驟天庭)’이라는 것이 있는데, 목인(木人)이 해(亥)를 얻고 신해(辛亥)를 만나며 또 역마 위의 천간(天干)이 득록(得祿)함을 만남이니, 가령 여섯의 임인생(壬人生)이 인오술(寅午戌)의 위치에 거(居)하고, 갑(甲)이 위로부터 숨어서 무(戊)의 천간(天干)을 얻으면 (여기서 무오(戊午), 무간(戊干) 등 판본마다 글자들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기문둔갑(奇門遁甲)》의 둔갑(遁甲)으로 확인하면 의외로 쉽게 풀린다. 기문연국(奇門烟局)에서 갑(甲)이 무(戊) 아래 숨어 둔갑(遁甲)하는 것을 말함이다. 그래서 기문둔갑의 연기(烟奇)에서는 갑가무류(甲加戊類)가 없고 모두 무(戊)로 변환하여 무가무(戊加戊), 무가을(戊加乙), 무가병(戊加丙) 등등으로 대치(代置)한다. 여기서는 무가무(戊加戊)의 복음(伏吟)을 가리킨다.)

무(戊)의 록(祿)은 사(巳)에 있는데 사(巳)는 천정(天庭)에 매이는 것이라, 다시 사(巳)를 보고 유합(酉合)을 얻는다면 옳은 것이니, 주로 벼슬이 극품(極品)에 오른다.

有馬後二辰，爲九地馬，主職近王廷。

有天馬貴神，乃歲中不見驛，五虎遁至馬上，看得何干，其干見天乙，  
而天乙所坐之干卻復見貴於馬上是也，貴不下三品。

역마 뒤의 두 번째 별이 있으면 ‘구지마(九地馬)’라 하는데 주로 궁궐과 조정 근처에서 벼슬을 한다. ‘천마귀신(天馬貴神)’이 있는데 이는 태세(太歲)중에 역마를 보지 못하고 오호(五虎; 甲寅, 丙寅, 戊寅, 庚寅, 壬寅의 다섯 호랑이 자리)가 역마 위에 숨어서 이르면 어느 천간(天干)을 만나는지 살펴서 그 천간이 천을귀인(天乙貴人)을 보면 곧, 천을귀인이 자리한 곳의 천간(天干)을 물리치고 다시 역마상의 귀인(貴人)을 보는 것을 이룸하니, 귀하기가 삼품(三品)보다 못하지 아니하다.

有有驛有馬者, 主位至侯. 干爲馬, 支爲驛.

如戊戌人, 馬在申而得庚申, 支干俱屬金, 到申臨官,

戊戌支干俱屬土, 到申長生, 本命及驛馬支干皆馬有氣, 是有驛有馬.

‘유역유마(有驛有馬; 驛도 있고 馬도 있다.)’ 라는 것이 있는데, 주된 지위가 제후(諸侯)에 이른다.

천간(天干)이 마(馬)가 되고, 지지(地支)가 역(驛)이 된다.

가령 무술인(戊戌人)의 마(馬)는 신(申)에 있는데 경신(庚申)을 얻으면 간지(干支)가 모두 금(金)에 속하는데 신(申)에 이르면 임관(臨官; 建祿)이 되고, 무술(戊戌)은 간지(干支)가 모두 토(土)에 속하는데 신(申)에 이르면 장생(長生; 여기서서는 수토동근(水土同根)이다.) 하니,本命(本命)이 역마(驛馬)의 간지(干支)와 함께 하면 모두 마(馬)의 기(氣)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유역유마(有驛有馬)’라 한다.

## 8강 신살 I

有驛馬清濁，甲子得丙寅，祿馬同鄉，又丙爲食神，乘長生馬。

丁丑得丁亥，爲天乙天官，乘臨官馬。

若乘長生臨官馬，或帶食祿貴氣，則遇一當百。

若乘病絕空亡馬，更值破敗交退伏神，則遇而不遇，縱爲官，粗濁卑賤，非清要之職。

‘역마청탁(驛馬清濁)’이 있는데, 갑자(甲子)가 병인(丙寅)을 얻으면 록마동향(祿馬同鄉)이라 하고

또 병(丙)이 식신(食神)이 되어 ‘장생마(長生馬)’를 탄다.

정축(丁丑)이 정해(丁亥)를 얻으면 천을(天乙)과 천관(天官)이 되고 ‘임관마(臨官馬)’를 타는 것이다.

만약 ‘장생임관마(長生臨官馬)’를 타고 혹 ‘식록귀기(食祿貴氣)’를 두른다면 일당백(一當百)을 만난 것이다.

만약 ‘병절공망마(病絕空亡馬)’를 타고 다시 ‘파패(破敗), 교퇴(交退), 복신(伏神)’의 값을 만난 즉, 만나도 만나지 않은 것이 되니, 설령 벼슬을 얻었다 할지라도 거칠고 혼탁하며 비천(卑賤)하여 청요직(清要職)은 아닌 것이다.

## 8강 신살 I

凡人遇馬，喜專旺，而嫌空亡駁雜爲不達；惡死絕，而喜逢食，見財爲有益。

商賈多愛馱寶，婦女最怕啣花；馱寶則富，銜花則淫。

銜花更忌木人值庚寅，乙亥見乙巳丁卯見丁巳己未見己巳，

尤重，男多淫蕩，女多私情。運中遇者同前斷。

무릇 사람이 마(馬)를 만나는데, 전왕(專旺)을 기뻐하고 공망(空亡)과 박잡(駁雜; 이것저것 뒤섞이어 순수하지 못한 것을 말함이다.) 함을 싫어하니, 있다면 막힘없이 트이지 못한다. 사절(死絶)을 미워하고 식신(食神)과의 만남을 기뻐하며, 재(財)를 보는 것이 유익(有益)하다. 상고(商賈; 장사꾼)는 타보마(馱寶馬)를 매우 사랑하고, 부녀자(婦女子)는 함화마(銜花馬)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타보(馱寶)인즉 부유하고 함화(銜花)인즉 음란(淫亂)하다.

함화(銜花)는 다시 목인(木人)이 경인(庚寅)의 값을 꺼리는데 을해(乙亥)가 을사(乙巳)를 보고, 정묘(丁卯)가 정사(丁巳)를 보며, 기미(己未)가 기사(己巳)를 보는 것이 더욱 그러하니, 남자는 음탕(淫蕩)함이 많고 여자는 사정(私情; 사사로운 개인의 정을 말함인데 여기서는 부부아닌 남녀가 몰래 정을 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많다. 운중(運中)에 만난 것도 먼저 것과 같이 판단한다.



## 8강 신살 I

小兒老人, 不利見馬, 小兒十二歲以前三歲以上,

或馬遇小運太歲沖或臨官馬, 遇多, 主驚病顛仆之厄.

老人五十以上, 或運與太歲乘之, 主氣虛腰痛, 腳痛之患, 亦如老人祿遇, 病多吐食之類.

少者見之, 多發病, 蓋老少並不堪乘馬, 以馬在五行中爲動躍之神故也.

소아(小兒)와 노인(老人)은 마(馬)를 보는 것이 불리하니, 소아는 12세 이전, 3세 이상인데 혹시 마(馬)를 소운(小運)과 태세(太歲)에서 만나 충하거나 혹 임관마(臨官馬)를 많이 만나면 주로 질병으로 놀라거나 전부(顛仆; 엎어져서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전복(顛覆)의 뒤집혀 엎어짐과 같은 뜻이니 차마(車馬)사고나 배가 뒤집히는 것을 말한다.) 의 재앙을 당한다.

노인은 50이상인데 혹시 운과 더불어 태세(太歲)에서 (역마를) 타면 주로 원기(元氣)가 약하여 요통(腰痛; 허리가 아픈 병) 과 각통(腳痛; 하체가 부실하여 다리가 아픈 병으로 류마티스나 관절염) 의 질환이 있고, 또 만일 노인이 (역마를 탄 가운데) 록(祿)을 만나면 음식을 토하는 류의 질병이 많게 된다.

나이 어린 사람이 보면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대부분의 노소(老少; 늙은이와 어린아이) 가 나란히 역마를 타는 것을 견디어 내지 못하니 마(馬)가 오행(五行) 중에 있으면 동약(動躍; 매우 흔들리고 움직이며 날뛰는 것) 하는 신(神)인 까닭이다.

# 천을귀인 <命理正宗> 三車一覽賦

天乙文星, 得之者聰明智慧.

천을귀인이 사주에 문성(文星 문창귀인)과 함께 있으면 지혜충명하다.

## 〈李虛中命書〉

天乙貴 人者 三命中最吉之神也.

若人遇之 主榮名早達 官祿易進 若更三命 皆乘旺氣 終登將相公卿之位.

大小運行年至此 亦主遷官進財 一切加臨至此 皆為吉兆.

천을귀인은 삼명학(고법 사주학, 현재 사주학인 자평학의 모태)에 있어  
최고의 길신이다.

만일 사람이 천을귀인이 있으면 일찍 영화로워지고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삼명의 천을귀인의 기운이 강하면 기어이 장상이나 공경대부까지 오를 수 있으며  
대운, 소운, 신수가 천을귀인에 이르면 역시 지위상승이나 재물을 얻는데 유리하고  
모든 것이 길한 조짐으로 작용한다.

## 〈三命通會〉 論天乙貴人

燭神經 曰 天乙貴遇生旺, 則形貌軒昂性靈穎悟, 理義分明, 不喜雜術, 純粹大器, 身蘊道德, 衆人欽愛.

死絕則執拗自是, 喜遊近貴. 與劫煞並, 則貌厚有威, 多謀足計與官符並, 則文翰飄逸, 高談雄辯.

與建祿並, 則文翰純實濟惠廣遊, 君子人也. 若落天中 或與天中合, 或與天中連珠, 當有伶倫之態, 好嘔吟, 伎藝人也.

〈촉신경〉에 이르길 천을귀인이 생왕하면 외모가 풍채있고 성품이 영특하고 이의가 분명하여 잡술을 좋아하지 않고 순수한 큰 그릇으로 도덕을 쌓아 여러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여 사모한다.

또한 사절되면 자신만 옳다고 고집하고 집착한다.

귀인의 가까이에서 유력함을 기뻐하는데 겁살이 더불어 병행하면 용모가 좋고 위엄이 있고 지혜가 많으며 계교가 넉넉하다.

관부살이 겹치면 글이 날개를 날고, 형이상학적 이야기와 웅변을 잘하며 건록이 겹친다면 문한이 순실하고 은혜를 베풀며 널리 교유하니 군자이다.

만약 천중살에 떨어지거나 천중과 합하거나 이어 있으면 세상을 이치를 다스리는 재능이 있으니 음악인의 모습에 있어 노래를 읊는 것을 좋아하는 기예인이다.

## 8강 신살 I

天乙貴, 三命中最吉之神. 若人遇之則榮, 功名早達, 官祿亦易近. 如三命皆乘旺氣, 終登將相公侯之位.

大小運行年至此, 亦主遷官進財, 一切加臨, 至此皆爲吉兆.

凡貴人所臨之處, 大概喜生旺, 無衝破, 道理順, 不落空亡, 天干納音偕和, 更得祿馬而晝夜不背.

或年時互換貴, 如甲午人見辛丑時, 丙申見己亥之類. 或四干並在一支上見貴, 如丑未生而得甲戌庚之類.

或四位天干通聚貴, 地支爲五行聚貴. 更遇天月二德爲佳.

천을귀인은 삼명 중의 최고 길신이라. 이를 만나면 영화롭고 공명에 일찍이 달함이 있으며 관록 역시 쉽게 나아가게 된다.

삼명이 모두 왕기를 탈 경우 마침내 장상과 공후의 지위에 오른다.

대소운과 행년이 이에 이르면 또한 명주가 관을 옮기고 재물로 나아가며 이체가 더하여 임하는 모든 것이 이에 이르러 모두 길조가 된다.

대저 귀인이 임하는 곳은 대개가 생왕함을 기뻐하고 충파가 없다면 그 도리가 순조롭다.

공망에 걸리지 않고 천간 납음이 함께 화합하며 다시금 녹마를 얻으면 주야에 상관없이 배반하지 않는다.

혹 년과 시로 귀인이 호환함이 있는데 곧 갑오인이 신축시를 보거나 병신인인 기해를 보는 종류이다.

혹 네 개의 간이 하나의 일지 상에서 함께 귀를 보는 것이 있는데 곧 축미생이 갑무경을 얻은 것과 같은 종류이다.

또 사위의 천간이 귀를 모음에 통하고 지지가 오행으로 귀를 모은 것이 있는데 다시금 천월이덕을 만난다면 참으로 아름답다.

《理愚歌》云：“貴人或落空亡裏，祿馬背違如不值。”

《寶鑒》云：“貴人無氣，雖有如無。”

《洞玄經》云：“貴人嗔則凶來。”

可見命中有貴，不可就爲吉論，要當細詳。

〈이우가〉에 이르기를

“귀인이 혹 공망에 떨어지면 녹마가 배신하고 어그러지니 놓지 않음과 같다.”고 하였다.

〈보감〉에 이르기를 “귀인이 무기하면 비록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임개는 “귀인이 사절되면 비인살이 된다”고 했고

〈통원경〉에 이르기를 “귀인이 진노한 즉 흉이 온다”고 하였다.

가히 명중에서 귀가 있음을 보더라도 이를 길론으로만 취함은 불가하니 마땅히 상세히 분별함을 요한다.

## 삼기귀인 <三命通會> 論三奇

《太乙經》以辛壬癸爲水奇, 謂之人間三奇, 其說無據,

但辛壬癸天干連珠, 謂之三台, 亦爲難得.

三奇要順布, 不欲倒亂, 如乙丙丁, 甲戊庚, 天干年月日時順布爲吉.

<태을경>에는 신임계로 수기(水奇)를 삼고 이를 일러 인간 삼기라고 하는데 이 설은 근거가 없다.

다만 신임계의 천간이 연주하면 이를 일러 삼태라고 하니 이 역시 얻기 어려운 것이 된다.

삼기란 순서대로 포국됨을 요하니 넘어지거나 어지러움을 바라지 않는다. 곧 을병정과 갑무경 같은 것이니, 천간에 순포되므로 길함이 되는 것이다.

## 8강 신살 I

《廣錄》又以乙人丙月丁時，是乙生丙丁，秀氣下降，主平常。

若乙時丙日丁年，是秀氣上達，反爲貴，似又不論順逆。

甲戌庚卻以順者爲貴，逆者福慢，亂者不壽，氣清則貴，氣濁則富。

〈광록〉에는 을인이 병월 정시가 있는데 이는 을이 병정을 생한 것으로 수기(秀氣)가 하강하는 것이니 명주가 평상할 뿐이다.

만약 을시에 병일 정년이라면 이는 수기가 상달하는 것이니라 도리어 귀함이다. 또한 순역을 논하지 않으니 갑무경은 도리어 순한 것으로 귀를 삼고 거역한 것은 복이 태만하다 하며 어지러운 자는 장수하지 못한다. 기가 청한즉 귀하고 기가 탁한즉 부이다.



## 8강 신살 I

論三奇, 太歲不帶而月日時帶著, 孤獨.

詩曰：“順十干神乙丙丁, 神童及第播聲名；日時祿馬公卿煞, 換武除文佐聖明.”

又曰：“順十干神甲戊庚, 兼得長生丙府名；若然無祿兼無馬, 只是財中蓄積人.”

又曰：“三奇須是重逢貴, 方是榮華福壽人；只有空奇無貴地, 貧窮下賤被欺凌.”

삼기를 논함에 “태세에는 두르지 않고 월일시로 두른 자는 고독하다”고 했다.

시(詩)에 이르기를 “천간의 을병정을 순포하면 신동급제로 이름을 드날린다.

일시에 녹마라면 공경인데 살을 바꾸어 무는 제거하고 문이 보좌하니 밝고 성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갑무경을 순포하고 겸하여 장생을 얻으면 양부의 이름이다.

그러나 무록에 무마라면 이는 다만 재물을 축적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삼기는 모름지기 귀를 거듭 만나야 영화롭고 복되며 장수하는 사람이다,  
단지 헛된 기만 있고 귀가 없으면 빈공한 하층민으로 사기와 능멸을 당한다”고 했다.

## 〈三命通會〉 論天月德

夫德者, 利物濟人, 掩凶作善之謂也.

貴神在位, 諸煞伏藏; 二德扶持, 衆凶解散.

凡命中帶凶煞, 得此二德扶化, 凶不爲甚; 須要日上見, 時上不犯剋沖刑破, 方吉.

凡人得之, 一生安逸, 不犯刑, 不逢盜, 縱遇凶禍, 自然消散.

대저 덕이란 사물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구제하는 것으로,

흉함을 가리고 선을 지음을 일컫는 것이다.

이 귀인이 있으면 제살이 없드려 숨는다.

이덕이 돕고 지지하면 여러 흉함이 모두 해산한다.

무릇 명중에 흉함을 들렀어도 이 이덕이 화함을 얻으면 그 흉이 심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모름지기 핵심은 일간에서 시상을 보는 것이니 극충형파를 범하지 않아야 바야흐로 길하다.

범인이 이를 얻으면 일생이 편안하고 한가로워 형벌이 없고 도적을 만나지 않으며

흉화를 만나도 자연히 해소되고 사라진다.

## 8강 신살 I

與三奇, 天乙貴同並, 尤爲吉慶.

或財官, 印綬, 食神, 變德, 各隨所變, 更加一倍之福.

入貴格, 主登科甲, 得君寵任; 或承祖蔭, 亦得顯達.

入賤格, 一生溫飽, 福壽兩全; 縱有蹇滯, 亦能守分固窮, 不失爲君子. 女命得之, 多爲貴人之妻.

《子平賦》云: “印綬得同天德, 官刑不犯, 至老無殃.” 是天德勝月德也.

삼기 천을귀가 병행하면 또한 길하고 경사스러움이 더해진다.

혹 재관 인수 식신 등이 덕으로 변하니 각각이 변하는 바를 따르고 다시금 더하면 그 복이 배로 증가한다.

귀격이 들면 명주가 과감에 올라 임금의 총애와 임직을 얻는다. 혹 조상 음덕을 계승하면 역시 현달한다.

천격에 들어도 일생이 등따시고 배부르며 복과 수가 양전한다. 어찌다 지체됨이 있어도 능히 분수를 지키고 실

로 궁하다해도 군자됨을 잃지 않는다. 여명이 이를 얻으면 귀인의 처가 되는 일이 많다.

〈자평부〉에 이르기를. “인수가 천덕을 얻으면 관의 형벌이 범하지 않으며 늙도록 재앙이 없다”고 했다.

이는 천덕이 월덕보다 낫다는 것이다.